

2016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

August , 2016 | 구지훈 시각예술학

WORLD ART | ITALY

더 나은 삶을 제안하다
2016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

글·사진 구지훈 시각예술학

(BIENNALE ARCHITETTURA 2016)

5.28~11.27 | VENEZIA



한국관 전경



한국관 내부 전경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베니스 산타 루치아(Venezia S. Lucia) 역은 매우 특별하다. 꽤 오랜 시간을 이탈리아에서 유학하는 동안, 한국인은 커녕 동양인조차 한 번도 들러보지 않았을 것 같은 작은 동네의 역까지 다녀보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베니스 산타 루치아 역은 그 어떤 역에서도 받을 수 없는 독특한 느낌을 준다. 나는 그것을 진짜 '로망'이라고 부르겠다. 베니스야말로 그 어떤 것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지구상의 유일한 곳이기 때문이다. 마법의 섬으로 들어서는 유일한 입구 같은 자유의 다리(Ponte della Libertà)를 지나며 좌우로 펼쳐지는 평화로운 바다 풍경에 축축히 마음이 적셔졌다고 느껴질 무렵이면 기차는 어느새 플랫폼의 끝에 다다르고, 베니스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상상하며 부푼 마음으로 기차를 내려서면 이제 당신은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자유를 느껴도 좋다. 쟁길음으로 역을 빠져나가는 그 누구든지 역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에 잠시라도 짧은 탄식을 내뱉지 않는다면 그는 아직 베니스를 충분히 즐길 마음의 준비가 덜 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대운하(Canal Grande) 좌우로 펼쳐진 수백 년의 세월을 가득 머금은 수상저택들과 그 사이를 쉽 없이 드나드는 수상버스와 유유히 흔들리며 나지막이 노니는 백조 같은 곤돌라들, 그리고 그에 타고 있는 관광객들의 꿈꾸는 듯한 행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 도시를 찾아온 모든 이들을 꿈꾸게 만든다. 이것이 베니스의, 베니스만이 할 수 있는 환영 인사다.

이탈리아를 여행하는 이라면 그 어느 누구든 한 번은 들러보았을 로마 테르미니(Termini)역을 비롯, 다른 중요한 역들이나 관공서 건물들을 다수 설계한 20세기 초 이탈리아 미래파 건축가 안줄로 마초니가 공들여 작업했던 베니스 산타 루치아 역을 나서면 모든 이들의 머리 속에는 각기 다른 베니스가 그려질 것이다. 산마르코 광장(San Marco Piazza)의 화려하고 시골벽적인 모습을 꿈꾸는 이가 있는가 하면 울긋불긋한 가면과 복장을 차려입고 마음껏 행진하고 먹고 마시는 카니발을 떠올리는 이도 있을 것이다. 화려한 대운하의 저택들 뒤로 가려진 고즈넉하고 작은 미로 같은 뒷골목을 아무 생각 없이 거닐고 싶은 이도 있을 것이며 리도(Lido) 섬의 끝없이 펼쳐진 해변에서 구스타프 말러(Gustav Mahler)의 교향곡 5번 4악장 아다지에도(adagietto)를 들으며 잠시 영화 <베니스에서의 죽음>의 탐미주의를 음미하고 싶은 이도 있을지 모른다. 일 년 내내 행사가 끊이지 않는 곳, 신분과 격식을 집어던지고 가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시골벽적하게 놀고 떠들던 카니발이 열리는가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스타들과 감독들이 모여 세계 최고의 영화제를 열기도 하는 곳, 이런 각양각색의 매력이 넘치는 곳에 예술이 피어나지 않을 도리가 없다. 베니스 비엔날레는 필연인 것이다.

이탈리아에서 유학한 이래, 2012년을 제외한 매년 비엔날레를 보러 갔었다. 그리고 매년 다녀와서 느끼는 점이 있었다. 홀

WORLD ART | ITALY



한국관 내부 전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수 해에 열리는 아트 비엔날레가 약간의 매너리즘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실망감이 확신으로 변하는 동안, 짝수 해에 열리는 건축 비엔날레는 매년 새로운 모습과 주제, 접근방법을 가지고 성장하여 이제는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세계 최고의 건축 전시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2016년의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가 이전과 달리 평단과 대중 모두의 고른 격찬을 받으며 승승장구하는 것은, 바로 올해의 제너럴 커미셔너의 선출이 '신의 한 수'였던 것 같다.

알레한드로 아라베나(Alejandro Aravena), 칠레 출신으로 '사회적 건축'을 부르짖는 건축가. 파리에서 건축 사무소를 운영하는 지인이 '세계 건축계에 이런 로맨틱 가이는 또 없을 것'이라고 격찬하던 이 미중년 건축가 한 사람이 이번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를 격이 다른 전시로 만든 원동력이었다. 특히나 주목할 점은 건축계의 노벨상이라는 프리츠커 상의 당해 수상자가 바로 비엔날레의 총감독으로 선출되었다는 점이다.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미 2010년 SANAA가 프리츠커를 수상하면서 세지마 카즈요(妹島和世)가 그 해의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의 제너럴 커미셔너로 영입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알레한드로 아라베나의 커미셔너 선출에는 좀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것은 몇 년 전부터 세계 건축계에 무르익

기 시작했던 어떤 한 흐름이 아라베나라는 건축가를 만나 빅뱅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르디니(GIARDINI) 국가관

자르디니 국가관은 평화로운 공원 안에 자리하기 때문에 비엔날레라는 대형 전시를 관람한다는 느낌과 함께 평화롭게 산책을 한다는 느낌도 받는다. 자연스럽게 2년 전의 호감이 남아있던 덴마크 전시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2년 전 매우 자연 친화적인 제안을 내놓았던 덴마크 관은 올해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공동주택을 제시했는데, 특히나 관심이 갔던 것은 '학생 주거'에 대한 사례들이었다. 물론 난민이나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 문제도 중요하지만 자국 학생들의 주거방식에 대한 시선은 예사롭지 않았다. 전세난만큼이나 심각한데도 크게 다뤄지지 않는 우리 학생들의 주거 문제 역시 '당연히' 사회적 비용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관점이라 크게 반가웠던 전시였다. 자르디니 공원의 큰 나무를 보존하며 지어진 멋진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합동의 북유럽 전시관 역시 'In Therapy'라는 타이틀 아래 건축이 제시할 수 있는 사회 치유적 방안들을 개성있는 방식으로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관에 당연히 흥미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2년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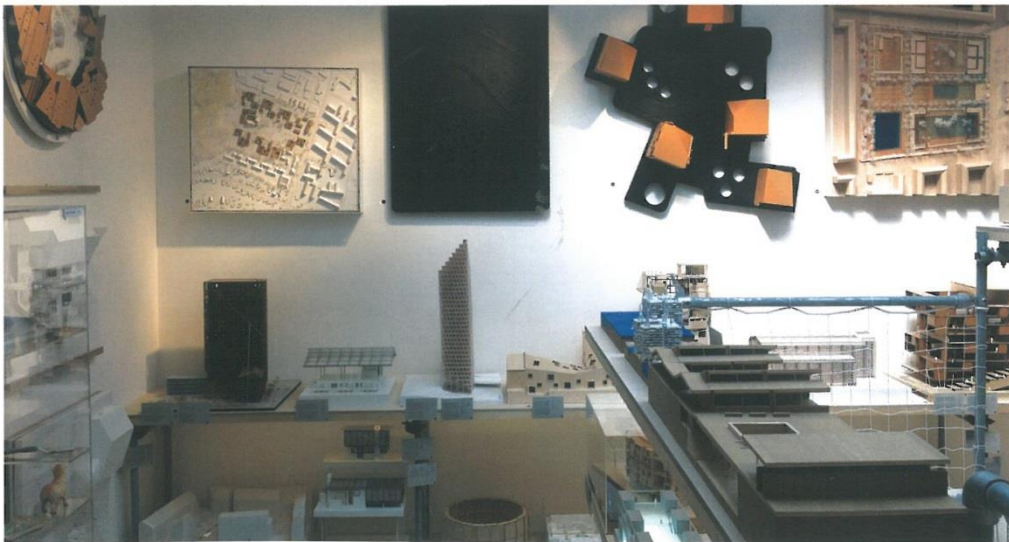
조민석 건축가가 황금사자 상을 받았던 전시가 정말로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더욱 궁금증이 높아졌다. 올해의 한국관의 주제는 바로 '용적률 게임'. 서울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 폭주하는 거주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변칙적인 주택 구조들을 게임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흔히 볼 수 있는 가정집들의 다양한 변형, 즉 옥탑방이나 세입자 전용계단, 반지하 등등의 주택들을 활용한 수많은 사진들을 보며 웃음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한편으로는 '용적률'이라는 지극히 한국적인 현실을 게임으로 치환한 발상은 매우 신선했으나 과연 그것이 '사회적 건축에 대한 제안'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아쉬운 점이 있다. 어느 나라나 사회적 약자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여러 건축적 제안들이 뒤따르는데 한국관은 블록코미디스러운 유패한 접근과 명쾌한 현실 인식, 깔끔하면서도 날카로운 비판까지의 훌륭했으나 이 용적률의 문제를 어떻게 사회적 건축이 풀어나갈 것인가, 어떤 다른 관점으로 접근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는 답변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싶다.

반면에 최근 EU 내에서 난민 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소리를 내는 독일관 같은 경우는 비엔날레의 전시라기보다 오히려 하나의 대형 학회장이나 공청회장을 방불케 했다. 아예 작정하고 할 말을 다하고 싶다는 듯이 온갖 그래프와 통계 수치들이 난무했고 정직한 이주민들의 생활 형태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

서 꾸준히 '임대료를 내려야 한다(Rent must be low)'를 주장하고 있었다. 몰려드는 이주민난들의 수용 및 주거 문제에 대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안들은 물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까지 다루면서 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 가장 민감하면서도 이성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전시였다. 하지만 자르디니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가장 다양하게 여러 민족들을 먼저 받아들였던 프랑스의 파빌리온이었다. 독일이 작금의 이주 난민 문제에 대한 고민과 현실, 그리고 관심을 강력하게 드러낸 전시를 꾸렸다고 한다면 프랑스는 인종과 융화의 문제에서 이미 오랫동안 겪어왔던 경험들을 자연스럽게 녹여내고 있었다. 독일이 매우 미시적이라고 한다면 프랑스는 매우 거시적이었다. 이미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사회 계층과 다양한 인종들을 인정하고 각자 그에 어울리는 최적의 모습을 찾기 위한 구호 '건축은 모두에게 문제이다(Architecture Matters to Everyone)'는 매우 매력적이었다.

아르세날레(ARSENALE) 전시관

아르세날레 전시관의 전시는 확실히 자르디니 국가관보다 훨씬 '돌직구'였다. '민간 위원회에서 공공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까?(Is it possible to create a public space in a private comission?)'라고 다짜고짜 관람객에게 던지는 질문 앞에서 나는 한동안 멍



자르디니 국가관 덴마크관 전시 전경

WORLD ART | ITALY

하니 서 있을 수 밖에 없었다. 그 어느 전시가 하고 싶은 말을 이토록 직접적으로 던졌던 적이 있는가? 하는 의문마저 들 정도였다. 사회적 건축은 미학도, 예술도 아닌 지금 당장 닥쳐온 우리 모두의 현실적 문제라는 것, 그리고 그런 문제에 답변하기 위해 건축은 말을 빙빙 돌릴 필요도 여유도 없다는 것, 지금 당장 우리 모두 토론해 보자는 것이 전시가 말하고자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전시는 단순히 질문만을 던져놓고 관람객들의 두뇌만 공회전시키는 전시가 아니었다. 질문에 이어지는 여러 주거 형태들이 제안되었다. 이동가능하거나 심플한 주거 형태, 그리고 직접적으로 군대, 재난, 난민, 종교 등을 언급한 판넬들을 보며 한 사람에게라도 더 사회적 건축에 대한 의견과 동의를 구하려는 커미셔너의 의지가 심분 전해졌다. 독일 건축가들은 국가관이 아닌 아르세날레 전시에도 난민 및 이주민들의 문제를 정말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었다. 셀프 빌트 하우스(Self-Built Housing)의 실례가 이뤄지고 있는 독일의 여러 도시들의 현황을 제시하면서 인간의 기본 중 하나인 주거문제에 대한 고민을 건축가들이 나누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러한 건축가들의 움직임과 참여야말로 독일이 현재 EU 내에서 난민 문제에 대해 꾸준히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일 것이다. 바로 이어진 환상적인 빛의 전시 역시 독일 참가자의 작품이었는데, 기술과 엔지니어의 힘이 사회에 얽힌 복잡다단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되고 지엽적인 지성들이 하나의 특수한 힘으로 변모한다

는 믿음을 담고 있었다.

일본인 건축가인 쿠마 켄고(Koma Kengo)의 돌직구형 작품 역시 강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쿠마 켄고는 산업 발전으로 점철된 20세기까지 건축에서 사용해왔던 물질들과 재질들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건축은 새로운 물질로 이뤄져야한다는 가치관을 내놓는다. 쿠마 켄고와 함께 강력하게 근대건축의 물질에 대해 비판을 가하면서 종이로 된 난민보호소를 제시했던 같은 일본인 건축가 시게루 반(Ban Shigeru) 역시 우리에게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작품으로 이 전시에 참여했다. 재독 아티스트인 최재은 작가와의 콜라보, <꿈의 정원>이 그것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남북한의 중앙에 자리한 DMZ(비무장지대)에 설치하자고 주장하던 작품으로 <꿈의 정원>은 환경 친화적인 재료들을 사용해 분단이라는 사회적 악조건을 점진적으로 해결해 보자고 외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았다.

그 밖에도 2014년 태국 북부를 강타한 지진으로 인해 무너진 9개의 학교를 재건하는 프로젝트를 상징하던 태국 팀의 오브제도 매우 인상적이었다. 흔들리기 쉬운 용수철 위에 무너진 9개의 학교를 미니어처로 지어 올려 지진 당시의 끔찍함을 잊지 않으면서도 현재 그 참극의 기억을 벗어나기 위해 건축가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오브제는 가슴이 뭉클하기까지 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팀이 전시한 '낮고 초라한 빈곤 지역의 학교들 리빙딩 프로젝트'의 오브제들과 사진들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인간의 기본 의무이자 권리인 교육의 수행에 있어



아르세날레 전시관 독일팀 전시 전경



아르세날레 전시관 태국팀 전시 전경

서도 건축가들은 보다 광범위하게, 보다 휴머니즘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아르세날레 전시관의 대미를 장식하는 것은 역시 개척국인 이탈리아 관이었다. 전통적으로 하나의 국가라는 개념보다는 도시국가(commune)의 개념이 아직도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이탈리아관의 주제는 ‘멋진 거주 단위 계획하기’이다. 많은 대도시들이 중세의 도시 계획에 근거하여 건설된 이탈리아에서 보다 멋진 도시를 건설한다면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해 이탈리아 파빌리온 큐레이터 시모네 스프리소(Simone Sfriso)는 행정, 건강, 녹지, 스포츠, 문화가 고루고루 필요하다고 답한다. 각 분야들의 표본이 되는 박스들을 대거 세워 현대사회에서 건축가들이 참여해야 하는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한다. 이탈리아 관에서 주목할 점은 역시 현대의 국가, 현대의 사회가 거주민들에게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더 이상 공장은 도시의 구성요소로 꼽히지 않는다. 성장과 생산은 이제 구시대의 패러다임일 뿐, 이제는 보다 여유를 즐기고 인간으로서 대접받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복지 요소들로 이뤄지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도시라는 점을 강조하는 주장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2016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의 공식 포스터에는 한 여인이 적당한 높이의 사다리에 올라가 넓은 평원을 내다보고 있다. 이 사람은 독일의 고고학자 마리아 라이헤(Maria Reiche)다. 공식 안에서 서문에 쓰인 아라베나의 글에 따르면 마리아 라이헤는 돈도, 기술적 지원도 부족했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다리를 들고 다니며 자신이 필요한 고고학 연구를 충분히 수행했다고 한다. 아라베나는 자신이 총괄한 이 전시가 마리아 라이헤의 철제 사다리 같은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며 ‘보는 자리와 관점을 바꿔 다른 결과를 얻어내는’도 구로써 건축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한다.

총감독의 전례 없이 강력한 메시지와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준 각국의 여러 건축가들과 평론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만들어낸 최고의 성과가 바로 이번 《2016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나아가 시계루 반 - 프라이 오토 - 알레한드로 아라베나로 이어진 일련의 건축적 흐름에서 보여지는 ‘사회적 건축’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 만약 당신이 인간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 이라면, 이 전시를 보고 나오면서 어렵지 않게 그 이름을 머릿속으로 떠올리게 될 것이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세계 각국의 건축가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사회적 건축’의 또 다른 이름, 그것은 바로 ‘보편적 복지’이다.■